

타운뉴스칼럼

6월의 문턱에서

인창해  
타운뉴스 발행인



3월 들어서서 토마토 모종 두 그루를 사다 심었다. 매일 저녁 뒤뜰에 나가 시간을 보냈다. 토마토만 있는 건 아니다. 알로에, 선인장, 붓꽃, 플루메리아, 아보카도, 행운목 등도 나를 반겨준다. 한 그루, 한 그루 들여다보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어쩌면 그들에게 속삭이는 이야기들은 내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다. '날이 참 좋다.' '춥지도 덥지도 않아 살만하다.' '잘 지냈는가?' 묻기도 하고 무사히 하루를 마감함에 감사도 한다.

뒤뜰에 도마뱀도 여러 마리 산다. 그들이 뜰에 해 끼치는 모습을 본 적은 없지만 여기저기서 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는 그들을 볼 때마다 토마토를 다치게 하지 않을까? 나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

해를 끼칠까 걱정을 하면서도 그들이 보이지 않으면 어디 있나 찾기가 한다. 반갑지 않은 녀석들이지만 매일 마주치다 보니 한 식구가 되었다. 뜰에서 보내는 시간은 불과 30여 분 정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즐겁다. 언젠가부터 아침에도 나가기 시작했다. 새들의 합창소리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뜰로 향하는 문을 열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늘로 퍼져나가는 새소리를 들으며 활짝 핀 꽃들을 바라보는 즐거움. 세상에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단 말인가?

4월 들어서면서 붓꽃이 활짝 피어 그 자태를 뽐내기 시작했다. 사나흘 피었다가 곧 시들기 시작하고 또 3주 정도 지나서 새롭게 활짝 꽃을 피어낸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세상만사를 잊게 된다. 토마토 두 그루에는 물을 매일 주면서도 붓꽃에는 물 한 방울 주지 않았다. 붓꽃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화단을 점령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들의 영역이 넓혀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잘 자라고 꽃을 피우고 지고하다니 참으로 신기하다. 다른 해에 비해 비가 많이 온 까닭이라고 생각한다.

그제 오후에는 활짝 핀 선인장 꽃을 발견했다. 털이 수북한 봉오리를 보면서 언젠가 꽃이 필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필 줄은 몰랐다. 봉오리는 세 개였는데 꽃은 두 송이만 피고, 다른 하나는 봉오리 상태에서 성장이 멈췄다. 선인장 꽃은 정말 아름답다. 얼른 보기에는 그 빛깔과 자태만 보고 연꽃과 혼

동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보면 연꽃과는 확연히 구별할 수 있다. 향기는 연꽃만 못하지만 은은한 향은 자극적이지 않아 좋다. 향을 오래 맡고 싶어 집안으로 들여다 놓고 즐겼다.

선인장 꽃이 피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다. 사진을 찍어 여기 저기 전송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핸드폰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들이 채 되기도 전에 꽃은 시들기 시작했다. 지금은 고개를 꼭 숙이고 완전히 쭈그러들었다. 정말 짧은 기간 피었다 시드는 꽃이다.

토마토 한 그루는 열매를 맺기 시작했으나 다른 한 그루는 꽃을 피면서도 한 동안 열매를 맺지 않았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던 나무는 가지가 뻗기 시작하면서 잎도 무성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꽃을 피우더니 열매도 달리기 시작했다. 앞서 열매를 맺었던 나무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성경 말씀이 떠오른다. 토마토는 세 개째 수확했다. 약간 색이 붉은 빛이 도는 것 같다 싶는데 그 다음날 보면 빨갱게 익어 있다. 정말 신비하다.

5월 초에 친구 집에서 민트를 옮겨다 심었다. 혹시 잘 못될까 조심스럽게 물을 주고 하루하루 눈여겨 살펴보았다.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 오래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주변과 잘 어울리게 크고 있다.

뒤뜰에는 아보카도 나무가 3그루 있다. 먹고 난 아보카도 씨를 세 군데 심었는데 하나에서는 바로 싹이 났고 쑥쑥 자라 내 키만 해졌다. 그러나 다른 두 그루는 씨를 심고 2년 뒤에 싹이 나와 지금 내 손으로 세 썸 정도 된다. 아보카도 나무에 물을 줄 때마다 꽃이 피고 열매 맺기를 기원한다. 무성한 잎을 보면 금방이라도 꽃을 피울 것 같으나 올 봄에도 꽃을 보기는 어려우리라. 하지만 머지않아 플루메리아가 예쁜 꽃을 피워 끈적끈적하면서도 달콤한 하와이안 향기로 온 뜰을 가득 채워줄 것이다.

오늘 아침 토마토는 그루마다 수십 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었다. 아직 어려 초록이 짙지만 이제 곧 새색시 연지처럼 붉게 무르익을 것이다. 어서 수확해서 한입 베어 물면 온몸이 상쾌해지는 느낌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chahn@townnewsusa.com

타운뉴스



제1526호 목차

- 타운뉴스칼럼..... 13
- 커뮤니티 소식..... 15,17
- 세상에 이런 일이..... 19
- 나는야 1.5세 아줌마..... 20
- 법률..... 21
- 전문인 칼럼..... 26,27,40
- 숨은그림 찾기/답, 낱말 퀴즈/답..... 28/50,28/54
-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33
- 건강..... 37,40,41
- 깔깔..... 38
- 부동산/경제..... 39
- 자동차..... 43
- 한인업소 안내지도..... 44,46,62,64,66
- 사진여행..... 45
- 요리..... 47
- 종교..... 50
- 연예..... 51,53
- 안내광고..... 54,55
- Domestic..... 56
- 여성..... 59,61

기주장익시

매장·화장·묘지주선·이장·장례보험등  
• 넓은 주차장 • 교통 편리 (LA, OC-20분)  
• 저렴한 비용으로 봉사하여 드립니다.

24시간 대표: 정영목 목사  
9830 Lakewood Blvd., Downey, CA 90240  
TEL (562)622-9393

타운뉴스® 배포지역

- 부에나파, 플러튼, 세리토스, 아테시아
- 하시엔다, 로랜하이츠, 다이아몬드 바 등 LA 동부
- 가든그로브, 어바인 등 오렌지카운티 전지역

광고문의 562.404.0027  
info@townnewsusa.com



www.townnewsusa.com

Keon-Jung Kim Dental Corp.

IMPLANT, COSMETIC, ORTHODONTIC & LASER DENTISTRY ORAL SURGERY

www.timkimdental.com

터스틴

김건중 종합치과

39년 임상경험의 치아이식 전문의 및 4명의 각 치과 전문의와 함께 모든 치과진료를 한곳에서 받을수 있는 종합치과

Our clinic is DISINFECTED and SAFE to VISIT

일반·미용치과 전문

Maria Capiral, DDS  
William Wang, DDS  
Diemphi Nguyen, DDS

교정치과 전문

Jin Kim, DDS, MS  
Columbia 명문대 졸업  
미국 board certified orthodontist  
(미국 교정치과 보드 전문의)

임플란트/구강외과 전문

Timothy Kim, DDS, MS, Ph.D



뼈가 부족한 분에서도 자가혈에서 채취한 PRP와 CGF를 이용한 뼈이식과 임플란트 수술 가능

- 3차원 CT 촬영으로 정확한 진단과 수술
- Surgical Microscope을 이용한 섬세한 외과수술 및 동영상 촬영
- 레이저를 통한 무마취·무출혈·무통 잇몸치료

Address 2492 Walnut Ave. #200, Tustin, CA 92780  
tel. 714-760-4988 949-679-6000  
(San Diego) 760-757-9876 760-479-9876



NEW LOCATION TO BETTER SERVE YOUR DENTAL NEED

KEON-JUNG 'TIMOTHY' KIM  
구강외과/치아이식 수술전문 ORAL SURGERY  
D.D.S., M.S.D., Ph.D.

- 대한 구강악안면 외과 board certified specialist
- 인천 중앙 길병원 치과 구강외과 주임과장 역임
- 대한 구강악안면 상형재건외과학회 지도의 역임
- LSU 치대 구강악안면외과 Postgraduate Fellow 역임
- LSU 치대 구강악안면외과 조교수 역임
- New Orleans Charity Hospital 구강외과, 치아이식과 임상과장
- 미 치아이식학회 (AAID, AO)회원
- ADA, CDA, OODS, KADA 회원